

지하차도 침수피해 사전에 막는다

서울시, 침수대응 행동매뉴얼 표준화 침수경보시 초기대응반 투입 운영 한전서 전원 차단... 감전사고 방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가 국지성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하차도의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침수대응매뉴얼 보강과 관내 배수용량 개선을 골자로 하는 '지하차도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서울 지역에는 총 74개소의 강제배수시설물이 있으며, 지하차도는 65개소다. 지하차도 배수펌프는 수위에 따라 자동 운전하며 위험수위에 도달하면 경고음이 울려 유관기관에 연락하도록 돼 있다. 펌프 3대가 가동하면 감시자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 교통을 통제한다.

시는 침수대응 조치 행동매뉴얼(선제적 차량통제 기준 등) 기준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관리기관별 통제단계와 대응방법이 상이해 기준을 정립,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매뉴얼을 보강하기로 했다.

매뉴얼에 의하면 지하차도 침수 전

에는 배수시설을 일제 점검해 사전에 정비하고 시설물들의 동작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기상특보(호 우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면 ▲지하차도 근무자 배수로 유입구 점검 ▲배수구와 집수정 이물질 제거 ▲집수정 수위 및 펌프 가동상황 지속 감시에 들어가게 된다. 호우경보 발령 후 예비펌프가 가동되거나 집수정 수위가 HWL에 도달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차량 통제를 실시한다. 배수펌프장 침수경보 시 도로사업소나 서울시설공단과 같은 관리기관에서 초기대응반을 투입해 운영한다.

만약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을 때에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원을 차단한다. 이후 상황전파 및 비상용 장비 투입을 준비한

다. 이동식 비상발전기가 현장에 투입돼 전원을 공급하고 상설 배수설비와 예비 장비를 활용해 지하차도에 고인 물을 밖으로 퍼내 지하차도 복구를 완료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침수대응 조치 행동매뉴얼을 관리기관에 배포해 지하차도 근무자에게 상시 숙지토록 하고 유사시 매뉴얼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하차도 배수용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9~12월 총 5억원을 투입해 지하차도 배수용량 적정성 검토 및 개선용역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시내 침수 취약시설인 3개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벌인다. 외부전문가 2명, 도로시설과 2명, 관리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근무자 침수대응 행동매뉴얼 숙지 여부, 교통 통제 체계, 배수시설 용량과 유지관리 상태, 수·배전반 설치 위치, 펌프 시설, 제어 시스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총 6000억 지원... 시민참여예산 투표 실시

시민이 사업 제안부터 예산 편성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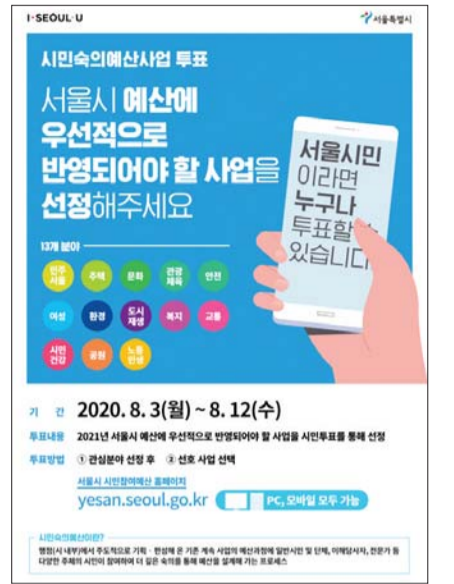
서울시는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투표를 3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 97개 중 10개를 선정해 7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시민참여예산(제안공모형)' 투표와 13개 분야의 기존 서울시 사업 126개 중 우선순위를 정해 5300억 원을 차등 지원하는 '시민속의예산(속의형)' 투표가 함께 진행된다.

전자는 시민편의를 높이거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사업 제안부터 심사, 선정, 예산 편성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후자는 시민과 공공이 함께 기존 서울시 사업에 대한 속의와 공론 과정을 거쳐 예산을 심의·조정하는 것이다. 투표 기간은 각각 이달 29일과 12일까지다.

투표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와 서울시 '엠보팅'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업 제안자뿐 아니라 일반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5개 구청과 지하철 시청 역사 내에 현장투표소도 마련된다.

시는 이달 29일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열어 제안공모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승인·결정한다. 결정된 예산안은 11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밖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중 1차 심사로 선정된 '우수실행사업' 후보 10개에 대한 시민 전자투표도 엠보팅 앱을 통해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한마당 총회'에서는 이 중 6개 우수사업에 대한 시상이 이뤄진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양질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번 투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기자

장애인콜택시 운행인력 늘려 확대 운영

서울시-시설공단, 택시 42% 증차 장애인 이동권 증진·편의성 향상



장애인콜택시. /서울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수를 작년 437대에서 올해 620대로 41.9% 늘려 이달부터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승합차에 리프트나 슬로프 등 장애인 맞춤 시설을 설치한 특장차량을 호출해 택시처럼 이용하는 서비스다.

공단은 증차에 따라 정규직 운전원 2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장애인콜택시 운행인력을 520명에서 720명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시와 공단은 장애인콜택시 탑승에 걸리는 평균 대기시간이 5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 기관은 내년에는 대수를 720대로, 운전원 수를 840명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이럴 경우 임차택시 50대를 포함하면 서울의 연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탑승 가능 인원은 작년 118만

명, 올해 168만명에 이어 내년에는 204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시와 공단은 장애 유형, 인원 및 이동장소, 이용시간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와상형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전세버스', '심야운영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맞춤형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일반 휠체어보다 긴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와상형 장애인콜택시' 10대를 신규로 도입해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전국 운행

이 가능한 장애인 전세버스 2대도 6월부터 운행하고 있다.

또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심야운영 장애인콜택시'의 수를 11대에서 25대로 늘렸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규모를 대폭 확대해 장애인 이동권 증진과 편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 내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모집

서울 4개 권역으로 나눠 활동



서울시내 공공미술. /서울시

서울시는 시내 곳곳의 공공미술 작품을 찾아 소개하는 '공공미술 시민발굴단'으로 활동할 시민 40명을 이달 4~23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미술 시민발굴단은 서울을 동북·동남·서북·서남 4개 권역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도슨트 프로그램'도 전면 확대해 더 많은 시민에게 작품을 직접 소개하기로 했다. 1차로 발굴단이 현장을 답사해 작품을 찾으면 2차로 도슨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공공미술 시민발굴단은 공공미술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사전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사전 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오는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공공미술의 이해, 지역자원으로서

의 공공미술 발굴, 도슨트 활동의 이해 등이다.

신청 접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블로그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향후 '공공미술 발굴지도'를 제작해 관광안내소와 구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경로당 단계적 운행 재개

서울시는 3일부터 경로당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경로당 휴관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심신 안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경로당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로당 운영 재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전제로 한다. 운영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1일 4시간)다. 경로당 내 식사 등 취사·취식 행위는 금지하고 당분간 프로그램도 중단한다.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 명부 작성, 체온 확인은 기본이다.

경로당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수용 규모의 50% 인원만 이용할 수 있다. 어르신 1명당 평일 주 2~3회만 이

용도록 시는 권고하고 있다.

서울내 자치구와 대한노인회지회는 ▲경로당내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지정 ▲경로당 이용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보관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제공 등을 지원한다.

경로당별로 지정된 감염관리책임자는 출입자 전원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체크하고 시설 소독과 같은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8 해질 19:38

8월 3일 (월) 음력 : 6월 14일

수도권 날씨 26~2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4/26, 동두천 24/25, 가평 24/26, 파주 23/26, 서울 24/26, 양평 24/27, 수원 24/26, 용인 24/26, 평택 24/28, 인천 23/26, 백령도 22/2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